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민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12일 화요일 (음 3월 6일) 제15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문재인 재방문 호남 우롱 처사”

국민의당 호남 후보자들 비판  
“수도권 녹색비람 차단 위한 것”

### 필승 결의

국민의당 전북지역 후보들이 11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총선 결의대회를 갖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1~12일 호남을 재방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호남지역 의원들이 “호남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잇달아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의 목적은 호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닌 수도권에 불고 있는 녹색비람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품은 호남에 있지만 마음은 수도권 표발, 대권 표발에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호남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것은 대선 후보가 문 전 대표로 정해진 당으로는 정권교체를 할 수도 없고 호남 발전도 없기 때문”이라며 “호남 차별의 근원인 대북 송금특검, 열린우리당 분당 야권 분열에 진솔한 반성도 없이 호남을 방문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수도권에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수도권이 어렵지 않았다면 더민주는 호남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대선에서 90% 이상 승리의 통합을 해 준 호남이지만 이번만큼은 정권교체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고 그 열망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친노패권 때문에 문 전 의원은 다니면 다닐수록 별로 호남에 득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역효과도 있다”며 “문 전 대표가 여기 와서 2번을 찍어 정동영을 떨어트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엔 2번을 찍으면 문재인을 재선입하는 거고 3번을 찍으면 정동영을 살려주는 것으로 선거구도가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광주와 전남·전북을 다니면서 국민의당이 야권을 분열했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말하기 전에 우선 문 의원 자신이 ‘분열의 씨앗’이라는 점을 자임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주 기자

4.13 총선 D-1



당신의 한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 ‘선거 관심 밖’ 부동산 승패 최대 관건

Sketch 총선 막판, 유권자들 표심은 어디에?

4.13 총선에서 전북은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실제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라 전망이다. 그러나 이른바 정치혐오 비토(투표거부) 기류도 강해 이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청년층의 투표 참여 운동이 실제 투표 참여로 이어질지도 변수다. 제20대 총선 막판 표심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아직도 결정 못했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11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한 마트에서 만난 유금순(41)씨는 제20대 총선 후보 선출을 묻는 기자 질문에 오히려 되물었다.  
유 씨는 “A후보는 맘에 안들고 B후보를 선택하자니 약한거 같고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후보가 그 후보라고 생각이 든다. 특히 서로 비방전이 난무,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중앙동 한 음식점에서 만난 김남수(46)씨는 “정당은 결정했지만 후보 결정은 못했다. 힘을 실어주고 싶은 정당은 있지만 중앙당 지도부가 맘에 안들어 후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 후보를 찍어야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젊은층은 더했다.

후보자간 비방전 난무 등 인해 투표 포기·무관심 등이 다수

높은 사전투표율 기록 본 투표로 이어질지 두고봐야

취업 준비생인 박경진(28)씨는 “참신함을 무기로 삼기에는 일부 후보 인지도나 지역 활동 경력이 너무 부족해 투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된다. 투표여부는 당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앞에서 만난 양혜선(21)씨는 “후보나 정당과 관련해 얘기하는 친구들이 없다. 관심 밖이다. 투표보다는 선거운동 하는 후보 자녀 중 누가 낫더라가 더 관심을 끈다며 무관심했다.

이처럼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누구 찍겠다는 답이 10명 중 2~3명을 넘지 않았다. 유권자 대부분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전부 부동산이 마진까지다”고 전했다.  
특히 20대 총선은 이전 선거와 달리 후보간 솔링 현상이 적어 오히려 막판까지 부동산이 더 많아졌다는 분위기가.  
지난 8~9일 진행된 사전투표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다.  
전북지역 사전투표 열기는 뜨거웠지만 최종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평가다.  
송천동에 거주하는 양혜선(37)씨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동원선거, 조직선거 등 영향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사전투표율과 달리 마음가는 후보가 없어 투표하지 않겠다는 지인들이 많다”고 했다.  
반면에 보합회사에 다니는 박문수(52)씨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3자 대

결로 펼쳐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수 있다. 당일인 13일에도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총선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새누리당에 대한 표심이 달라졌다는 것. 유권자들은 “한명 좁은 이라는 말로 풀어내는 게 쉬운 듯했다.  
택시운전기사인 이명훈(66)씨는 “같은 지역에서 몇 번째 떨어진 후보에 관심이 간다.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게 본다”고 했다.  
야당 텃밭에서 여당 후보를 선택하는데 머뭇거리기도 했다.  
사직자 김운태(52)씨는 “새누리당 후보를 찍자니 중앙정치에서 여당 견제를 못하는 것만 같아서 망설여진다. 더민주가나 국민의당이 싫어도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매일 INDEX

5면 전주시, U-20 월드컵 개막전 홍보 강화

전주시가 '2017 FIFA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주월드컵경기장 개막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은 이동원 (鼓隱 李東元) 선생 추모

# 제4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 주최·주관: 부안농악보존회, 전주매일신문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의회

※ 일시: 2016.5.8.(일) 09:00~15:00 ※ 장소: 부안군청 광장  
문의: 063)584-4182 / Fax 063)584-3250 / 010-2425-4182

제4회 부안 마실 축제  
5월 6일(금) ~ 5월 8일(일)